

역대급 예산 확보...호남권 미래 비전 구체화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성과보고회

광주시, 16% 증액...AI·모빌리티 시범도시 ‘속도’ 전남도 12조7023억원...해상풍력·SOC 확충 탄력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 3개월 만에 성과보고회를 열어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성과와 신규 사업 반영 현황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당·정이 협력해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의 미래 비전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과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호남권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됐다고 밝혔다.

성과보고회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당 지도부, 서삼석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훈 상임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호남발전특위 출범 이후 추진한 주요 과제의 진행 상황과 정부 및 국회 예산 반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공유하

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향후 호남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고회에서는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주, 전북, 전남 등 호남권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된 점과 미래 전략 산업과 문화, 민생 분야까지 3대 축을 균형 있게 완성한 점이 주요 성과로 강조됐다.

특히 광주시는 총 3조949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는 전년 대비 5639억원 증가(증액률 약 16.6%)한 예산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기반 재정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광주시 성과 가운데 미래전략산업 분야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자율주행실증도시+AI학습센터), 국가AI데이터센터 고도화, AX 실증밸리(R&D), GIST 부설 광주 AI 과학영재학교 설립, AI 헬스케어 실증 complex, 광주 AI의료생태계 구축, 광주 AI실증도시 실현(용역비), 미래모빌리티 기능안전



광주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예산 정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24조원의 호남 예산을 쟁취하고 당대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과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시험 기반 구축,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AI 생태계 확장,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광주가 AI·모빌리티 실증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이 마련돼 지역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기지영의탄약고 이전,

광주천 하천정비 등 생활인프라, SOC·교통·도시기반 예산도 균형 있게 확보되며 산업 성장과 발맞춰 추진하게 됐다.

역사·문화 분야 사업도 반영됐다.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 ACC 아트 에비뉴 조성 등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강화 사업도 반영되면서 광주의 도시 정체성과 문화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은 내년 예산안 규모가 총 12조

7023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상풍력과 RE100 산업 기반 구축, 교통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 의미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신안 8.2GW 해상풍력 지원 인프라, 여수·목포항 기능 보강, 남해안권 관광개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및 항행안전시설 개선, 국지도 22호선 등 도로망 확충 예산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이번 예산 확보가 해상풍력 산업 육성과 지역 SOC 개선, 관광 기반 확충

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단순한 예산 확보 결과 공유를 넘어 호남발전특위가 추진해온 지역별 전략과 향후 로드맵을 재정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청래 당대표는 "특위 위원들의 노력을 통해 획기적인 제안들이 제시됐고, 다수의 신규 사업과 예산이 실제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특위는 올해 성과에 그치지 않고, 호남의 미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은 "호남발전특위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토대로 더 큰 과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호남발전특위가 8월 발족 이후 당대표 주관으로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호남 발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정부 예산안 과정에서 노력한 호남 지역 예산을 당대표가 직접 챙기며 반영을 이끈 것은 역대에도 없던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당대표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호남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민형배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책임 강화” ‘쿠팡 방지법’ 발의...“개인정보 유출 피해 상담지원 의무”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사진)은 10일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치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율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 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라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별별 홍보G’ 전시작품 관람하는 시민들.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025년 홍보성과 공유회 ‘별별 홍보G’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광주디자인진흥원 홍보부스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열린 ‘별별 홍보G’ 행사는 시·유관기관 홍보협의회 소속 홍보담당자와 기관별 시민기자단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관별 홍보성과 공유, 시청홍보 기여시민 시상, 홍보명사 초청강연, 홍보부스 운영 등이 열렸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서구 내년 예산 7348억...“착한도시 완성”

‘제로베이스’ 재편...민생·골목경제·복지 집중 투자 행사성·업무추진비 등 일괄 감축...전 분야 체질 개선

광주 서구가 2026년 재정 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정하고 행정·복지·경제·환경 전 분야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서구는 최근 총 734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하며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줄여 최적의 효과를 내겠다”고 10일 밝혔다.

서구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했다.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은 동결했으며, 업무추진비는 10%, 행사성 경비는 20% 삭감했다. 투자사업도 공정률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따져 ‘단계적 편성’을 적용해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

내년도 역점 분야는 마을자치·골목경제·통합복지·환경·안전·문화다.

서구는 2026년을 ‘진정한 마을자치 완성의 해’로 규정하고 370억원을 투입한다.

각 동은 역사·문화를 담은 마을 BI 프로젝트 고도화, 주민자치회 교육체계 구축, 마을리더 상설교육 등이 포함됐다. 양

동 다목적센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유덕동 다목적센터, 뽕밭 어울림센터, 농성1동 건강지원센터 등 생활거점 기반 시설도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97억원이 배정됐다.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골목페이페이백 확대를 통해 주민은 소비 혜택을,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하나금융그룹과 연계한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를 신설해 중장년층의 고용 기반도 강화한다.

복지 분야에는 48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구청 통합돌봄·건강도시 모델 구축을 본격화하고, 서구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스 착한가게·착한쿠폰 사업 등 민간 협력망을 강화한다. 대표 생활복지정책인 전원국사·전원택시 사업도 내실화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인다.

환경·자원순환 분야에는 380억원이 배정됐다.

AI 기반 스마트 폐기물 배출 시스템을

도입해 쓰레기 감량과 처리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한다. 18개 동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체계화하고, 장에 제약 없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걷기 중심의 맨발로(路) 조성 등 주민 체감형 사업도 진행된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250여명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저지대·배수 취약 지역에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해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고 대응력을 높인다.

문화 분야에는 140여원이 투입된다. 서빛마루문예회관, 공원, 골목 등 생활문화 거점을 확충하고, 서창한옥문화관을 나눔누리소·감성조망대 등과 연계해 서구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이라는 의미의 세관대 서구, 행복학교 운영도 내실 있게 다듬어 배움이 일상의 활력이 되는 도시를 완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호준 기획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골목경제 회복, 통합복지 강화, 일상 속 문화·배움 확산 등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단기 성과보다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튼튼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노소영 구의원,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사진)이 제 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주요조치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해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

국힘의원 비례대표인 순천 출신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작년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모든 기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 출신인 인 의원은 2023년 10월 23일 김기현 대표 재임 시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돼 윤석열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의 내부 혁신을 이끌다 42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